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참 고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1. 27(일)	담당부서	통상정책총괄과 세계무역기구과
담당과장	강감찬 과장(044-204-5620) 정경록 과장(044-203-5920)	담 당 자	최승효 사무관(044-203-5625) 김애경 사무관(044-203-5923)

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활발한 양자·다자 활동 전개

- 통상교섭본부장, 다보스포럼 계기 9건의 양자면담과 WTO 장관회의 등 참석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**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**은 1.22.(화)~1.25.(금)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**2019 세계경제포럼(다보스 포럼)에 참석**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**활발한 양자 및 다자 활동을 전개**했다.

○ 김 본부장은 수소경제 등 **4건의 세션**과, **총 9건의 양자**면담, **3건의 세계무역기구(WTO) 회의**에 참여해,

< 통상교섭본부장 주요 활동 >

- 다보스포럼 세션(1.22～24)
  - 수소경제, 무역투자, 첨단제조, 미래공장
- 양자회담(1.22～25)
  - CITIC Capital 회장, 사우디 경제기획부장관, 캐나다 통상다변화장관, 영국 국제통상부장관, 홍콩 상무부장관, 알리바바 회장, EU 통상담당집행위원, 브라질 외교부장관, 러시아 경제개발부장관
- WTO 회의(1.24～25)
  - 개혁 소그룹 장관회의, 전자상거래 비공식 장관회의, 통상장관회의

○ ❶ 유럽연합(EU), 캐나다의 **철강수출 제한조치 해소** 노력, ❷ 노딜 브렉시트 대비 **한-영 임시조치 합의**, ❸ **브라질, 러시아와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 모멘텀 마련**, ❹ **수소경제 및 다자무역체제 논의 주도**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.

1. 주요 양자면담 및 다보스포럼 세션 참석 결과

□ 김 본부장은 **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수출확대와 신산업을 위해 총 9건의 양자면담**과, **수소경제 등 포럼 세션에 참석**하였음.

❶ 주요국의 브렉시트 동향 점검과 노딜 대비

- **영국 리암 폭스(Liam Fox) 국제통상부 장관, 유럽연합(EU) 말스트롬(Malmstrom) 통상담당집행위원**과 **브렉시트** 동향, 전망과 대응에 관한 **의견**을 **교환**했으며,

- 특히 **영국과**는 **노딜 브렉시트**에 대비한 **비상적 임시조치** (emergency bridge)를 **신속**히 **진행**해 나가기로 하는 등, 노딜 브렉시트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**대응방안을 모색했다.**

❷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 등 보호무역주의 대응

- **유럽연합(EU)과 캐나다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***에 의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, **말스트롬(Malmstrom) 통상담당집행위원**과 **캐나다 짐 카(Jim Carr) 통상다변화장관**과 양자면담을 갖고,

* EU : '19.2.2일부터 철강 26개 품목에 지난 3년 평균 수입의 105% TRQ(매년 5%씩 증량), 초과시 25% 관세부과하는 최종조치 계획 발표('19.1.4)

* 캐나다 : '18.10.25일부터 철강 7개 품목에 지난 3년 평균 수입의 100% TRQ, 초과시 25% 관세 부과하는 잠정조치 시행중

- 세계무역기구(WTO)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요건*, 자유무역협정(FTA)** 등을 감안해 상대국 **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**에서 **한국산 철강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**

* ①급격한 수입증가, ②심각한 국내산업 피해·우려, ③인과관계, ④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전

** 한-캐 FTA :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글로벌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음

- 특히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도금강판 **양국간 통계 불일치**로 대(對) **유럽연합 투자 우리기업**의 **애로**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**시정조치를 요구**했으며, **유럽연합 측도** 실무상 실수가 확인되면 **시정**하겠다는 **답변**을 얻어냈다.

❸ 자유무역협정(FTA) 국면전환 확보

- **브라질 아라우즈(Araujo) 외교부장관**과 면**담**을 갖고, **한-메르코수르 무역협정(TA)**이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**2차 협상**을 통해 **진전된 결과**를 **도출**할 필요가 있다는데 **상호 인식**을 **같이** 했다.

- **러시아 오레쉬킨(Oreshkin) 경제개발부장관**과의 면담에서는 한-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, **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개시**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.

❹ 산업·통상 협력 강화

- 김 본부장은 '수소사회 보급확대 가속화 기반 구축'을 주제로 개최된 **다보스포럼 수소경제 세션에 참석,**

  * Building a fast track for a widespread deployment of hydrogen

  · 우리나라의 **수소경제 이행방안(로드맵,** 1.17)을 **발표하고, 국제 협력 기반 구축**을 위한 **한국의 활동 계획**을 **소개**

- 또한 **사우디 알투와이즈리(Altuwaijri) 경제기획부장관과의 양자면담**을 통해, 양국간 **산업협력 강화**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, 향후 **고위급 방문** 등을 통해 **성과를 구체화**하기로 했다.

- 그 외, 첨단제조, 미래공장, 무역투자 이사회 등 다보스포럼 세션

활동과 중신그룹(CITIC Capital), 홍콩 상무부장관, 알리바바 회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세계 경제 전망, 지역 정세,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.

2. 세계무역기구(WTO) 회의 참석 결과

□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연이어 개최된 **3건의 세계무역기구(WTO) 회의 참석**하여,

○ 다자체제 위기극복을 위한 개혁논의가 본격화 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, 상소기구 등 여전히 남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.

❶ 세계무역기구(WTO) 개혁 소규모 통상장관회의

- 김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 개혁논의를 위한 소규모(한국을 비롯한 13개국* 참석) 통상장관회의에서 **상소기구에 대한 우려**사항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집중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

* 한국, 캐나다, EU, 일본, 싱가폴, 호주, 뉴질랜드, 케냐, 노르웨이, 스위스, 브라질, 멕시코, 칠레

- **아제베도 사무총장** 또한 올해 말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될 수도 있는 만큼 **상소기구 논의가 매우 시급**하다면서(extremely urgency) 회원국들이 관련 논의를 지속해갈 것을 요청했다.

- 유럽연합 등 다른 참석국들도 상소기구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, 세계무역기구 개혁이슈 전반에 있어 여타 회원국에 대한 현장지원 활동(아웃리치) 필요성을 언급했다.

❷ 세계무역기구(WTO) 전자상거래 비공식 장관회의

- 김 본부장은 **전자상거래 협상 출범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**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가 가져온 도전과 기회를 말했다.

- **특히 이번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**이 **전 세계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**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.

- 또한 지금 세계무역기구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, **이번 협상 개시는 세계무역기구가 아직 건재함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**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회원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.

- 한편, **참여국들은 이번 장관회의 계기 공동선언문을 발표**하고,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 협상 개시를 위한 **규범 제정 논의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.**

❸ 세계무역기구(WTO) 비공식 통상장관회의

- 다보스포럼 계기 연례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**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주요 의제**로 다뤘다.

- 김 본부장은 지난 한해 투명성, 분쟁해결체제 등 주요 분야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, 상소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강조했다.

- 또한, **올해가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시험대**가 될 것이라면서 다자체제 복원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다.

- 회원국들 또한 세계무역기구 위기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는 한편, 세계무역기구 체제 복원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최승효 사무관(☎ 044-203-5625), 세계무역기구과 김애경 사무관(☎ 044-203-59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